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독서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글의 내용을 파악하고, 추론과 비판, 종합적 판단 등의 사고 과정을 통해 의미를 재구성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능숙한 독자들은 독서의 과정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식적이고 체계적인 계획과 방법, 즉 전략을 사용하여 독서를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복잡한 글의 핵심 내용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마인드맵을 사용했다면, 마인드맵을 사용하는 것은 독서전략이 된다. 핵심 내용 파악을 위해서 마인드맵뿐만 아니라 캐릭터 차트, 도식으로 정리하기 등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목적이 같더라도 전략은 다양하게 ㉡구사할 수 있다.

라파엘이 개발한 ㉢QAR(Question-Answer Relationships)는 독자들이 질문을 만들고 질문의 답을 찾는 과정을 통해 글의 정보를 파악하고 의미를 재구성하는 독서 전략이다. QAR에서 질문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글 속에 해답이 있는 질문이다. 이것은 글에 해답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확정 질문’과 앞뒤의 정보를 연결해야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연결 질문’으로 나눌 수 있다. 둘째는 독자가 사고를 확장해야 하는 질문이다. 이것은 다시 ‘저자와 나 사이에 해답이 있는 질문’과 ‘나의 생각에 해답이 있는 질문’으로 나눌 수 있다.

「허생전」의 예를 든다면 확정 질문은 ‘허생이 매점매석을 한 물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처럼 정보의 위치를 확인하면 ‘과일과 말총’이라는 답을 바로 찾을 수 있는 질문이다. 연결 질문은 ‘허생과 이완의 복벌에 대한 생각 차이는 무엇인가?’와 같이 주로 주장과 근거 파악, 차이점과 공통점 파악 등 답이 텍스트의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서 텍스트의 여러 부분을 ㉣결합해야 답할 수 있는 질문이다.

저자와 나 사이에 해답이 있는 질문은 독자의 배경지식과 글 안의 근거를 함께 활용해야 답을 할 수 있는 질문이다. ‘허생이 숟가락을 잡을 때는 오른손으로만 잡게 하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은 글 안에 답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좁은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옆 사람과 숟가락을 드는 손이 달라 부딪쳐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허생이 어떤 의도로 그런 말을 했는지 답을 할 수 있다. 나의 생각에 해답이 있는 질문은 자신의 상상이나 생각,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구성된 질문이다. ‘허생은 사라진 뒤 어떻게 살았을까?’, ‘자신이 생각할 때 허생은 좋은 사람인가?’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독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답으로 말할 수 있다.

이처럼 QAR 독서 전략은 글 속에 해답이 있는 질문하기를 통해 글의 정보를 파악하거나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또 독자가 사고를 확장해야 하는 질문을 통해 추론과 판단의 능력을 키우는 데 ㉥적절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1. 윗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QAR은 마인드맵과 같은 독서 전략의 하나이다.
- ② 독자는 자신의 배경지식으로 글의 내용을 이해한다.
- ③ QAR의 질문 유형 중에는 책 속에 답이 없는 질문도 있다.
- ④ 글의 주장과 근거를 파악하는 것은 독자가 사고를 확장해야 하는 질문과 관련이 있다.
- ⑤ QAR 독서 전략을 통해 글의 정보나 구조를 파악하고 추론과 판단 능력을 키울 수 있다.

2. 윗글의 QAR을 적용하여 만들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질문 유형	질문
①	확정 질문	능숙한 독자들은 어떻게 독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가?
②	확정 질문	「허생전」 통해 알 수 있는 연결 질문의 예시는 무엇인가?
③	연결 질문	저자와 나 사이에 해답이 있는 질문과 나의 생각에 해답이 있는 질문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④	저자와 나 사이에 해답이 있는 질문	저자와 나 사이에 해답이 있는 질문은 어떤 방식으로 답을 할 수 있는 질문인가?
⑤	나의 생각에 해답이 있는 질문	QAR 독서 전략을 활용한 독서는 효율적일까?

3. 밑글의 ㉠과 <보기>의 ㉡을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 KWL은 독서의 목적을 분명히 하여 글을 읽게 해 주고, 독자의 배경지식과 독서를 통해 얻은 새로운 지식 사이의 결합을 촉진하기 위한 독서 전략이다. KWL에서는 독자가 ‘아는 것’(Know), ‘알고 싶은 것’(Want to learn), ‘배운 것’(Learned)을 표에 각각 작성한다. 우선 글의 제목이나 목차를 통해 화제를 파악한 후, 화제와 관련하여 알고 있는 것을 K에 자유롭게 적는다. W에는 더 깊이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한 질문을 만든다. W의 내용을 작성한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글을 읽어 가면서 K와 내용이 일치하는지, W의 내용이 나오는지 유의한다. 글을 다 읽고 난 후 L에는 새로 알게 된 내용을 기록한 다음, 새롭게 알게 된 것 중에서 의심이 생기는 내용이 없는지를 검토하여 L에 추가로 기록한다.

- ① ㉠은 ㉡과 달리 읽기 후에 질문을 만든다.
- ② ㉠은 ㉡과 달리 배경지식 없이 글을 이해하는 독서 전략이다.
- ③ ㉡은 ㉠과 달리 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
- ④ ㉡은 ㉠과 달리 독서 과정의 목적 달성을 위한 독서 전략이다.
- ⑤ ㉠과 ㉡은 모두 독서 전에 질문 목록을 만들어 두어야 한다.

4. 밑글의 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마인드맵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 ② QAR의 가치와 한계를 밝히고 있다.
- ③ 독서 전략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있다.
- ④ 확정 질문과 연결 질문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 ⑤ 라파엘이 QAR을 개발하게 된 계기를 밝히고 있다.

5.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a: 생각하거나 계획한 대로 일을 해냄.
- ② ㉡ b: 참고로 비교하여 대조하여 봄.
- ③ ㉢ c: 둘 이상의 사물이나 사람이 서로 관계를 맺어 하나가 됨, 또는 그렇게 되게 함.
- ④ ㉣ d: 쓸모가 있음.
- ⑤ ㉤ e: 일이나 조건 따위에 꼭 알맞음.

[6~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독서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글의 내용을 파악하고, 추론과 비판, 종합적 판단 등의 사고 과정을 통해 의미를 재구성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능숙한 독자들은 독서의 과정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식적이고 체계적인 계획과 방법, 즉 전략을 사용하여 독서를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복잡한 글의 핵심 내용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마인드맵을 사용했다면, 마인드맵을 사용하는 것은 독서 전략이 된다. 핵심 내용 파악을 위해서 마인드맵뿐만 아니라 캐릭터 차트, 도식으로 정리하기 등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목적이 같더라도 전략은 다양하게 구사할 수 있다.

라파엘이 개발한 ㉠QAR(Question-Answer Relationships)는 독자들이 질문을 만들고 질문의 답을 찾는 과정을 통해 글의 정보를 파악하고 의미를 재구성하는 독서 전략이다. QAR에서 질문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글 속에 해답이 있는 질문이다. 이것은 글에 해답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확정 질문’과 앞뒤의 정보를 연결해야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연결 질문’으로 나눌 수 있다. 둘째는 독자가 사고를 확장해야 하는 질문이다. 이것은 다시 ‘저자와 나 사이에 해답이 있는 질문’과 ‘나의 생각에 해답이 있는 질문’으로 나눌 수 있다.

「허생전」의 예를 든다면 확정 질문은 ‘허생이 매점매석을 한 물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처럼 정보의 위치를 확인하면 ‘과일과 말총’이라는 답을 바로 찾을 수 있는 질문이다. 연결 질문은 ‘허생과 이완의 북벌에 대한 생각 차이는 무엇인가?’와 같이 주로 주장과 근거 파악, 차이점과 공통점 파악 등 답이 텍스트의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서 텍스트의 여러 부분을 결합해야 답할 수 있는 질문이다.

저자와 나 사이에 해답이 있는 질문은 독자의 배경지식과 글 안의 근거를 함께 활용해야 답을 할 수 있는 질문이다. ‘허생이 손가락을 잡을 때는 오른손으로만 잡게 하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은 글 안에 답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좁은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옆 사람과 손가락을 드는 손이 달라 부딪쳐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허생이 어떤 의도로 그런 말을 했는지 답을 할 수 있다. 나의 생각에 해답이 있는 질문은 자신의 상상이나 생각,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구성된 질문이다. ‘허생은 사라진 뒤 어떻게 살았을까?’, ‘자신이 생각할 때 허생은 좋은 사람인가?’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독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답으로 말할 수 있다.

이처럼 QAR 독서 전략은 글 속에 해답이 있는 질문하기를 통해 글의 정보를 파악하거나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또 독자가 사고를 확장해야 하는 질문을 통해 추론과 판단의 능력을 ㉡키우는 데 적합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독서의 의미를 정의하여 내용 이해를 돕고 있다.
- ② 예시를 들어 독서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 ③ QAR의 개념을 설명하고 질문의 유형을 나누고 있다.
- ④ QAR의 유용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⑤ 「허생전」의 내용을 설명하여 독자의 배경지식을 활성화하고 있다.

7. 윗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독서 목적이 같으면 같은 독서 전략을 사용한다.
- ② 연결 질문을 통해 독자는 글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 ③ 확정 질문은 텍스트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결합하여 답할 수 있다.
- ④ 저자와 나 사이에 해답이 있는 질문은 독자의 배경지식으로부터만 답할 수 있다.
- ⑤ 나의 생각에 해답이 있는 질문은 독자가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8. 윗글의 QAR을 「허생전」에 적용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허생이 매점매석을 한 물품은 무엇인가?’는 확정 질문으로 그에 대한 대답은 책 속에서 찾을 수 있다.
- ② ‘허생과 이완의 북벌에 대한 생각 차이는 무엇인가?’는 차이점을 파악하여 대답하여야 하는 연결 질문이다.
- ③ ‘허생이 손가락을 잡을 때는 오른손으로만 잡게 하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는 답과 근거가 글 안에 없는 독자가 사고를 확장해야 하는 질문이다.
- ④ ‘허생은 사라진 뒤 어떻게 살았을까?’는 독자들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나의 생각에 해답이 있는 질문이다.
- ⑤ ‘자신이 생각할 때 허생은 좋은 사람인가?’는 독자가 추론과 판단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질문이다.

9. 윗글의 ㉠와 <보기>의 ㉡을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KWL은 독서의 목적을 분명히 하여 글을 읽게 해 주고, 독자의 배경지식과 독서를 통해 얻은 새로운 지식 사이의 결합을 촉진하기 위한 독서 전략이다. KWL에서는 독자가 ‘아는 것’(Know), ‘알고 싶은 것’(Want to learn), ‘배운 것’(Learned)을 표에 각각 작성한다. 우선 글의 제목이나 목차를 통해 화제를 파악한 후, 화제와 관련하여 알고 있는 것을 K에 자유롭게 적는다. W에는 더 깊이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한 질문을 만든다. W의 내용을 작성한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글을 읽어 가면서 K와 내용이 일치하는지, W의 내용이 나오는지 유의한다. 글을 다 읽고 난 후 L에는 새로 알게 된 내용을 기록한 다음, 새롭게 알게 된 것 중에서 의심이 생기는 내용이 없는지를 검토하여 L에 추가로 기록한다.

독서 시기	QAR	KWL
독서 전	① 다양한 유형의 질문 만들기	② ‘아는 것’ 적기 ‘알고 싶은 것’ 적기
독서 중	질문을 생각하며 읽기	③ ‘아는 것’과 내용이 일치하는지 유의하며 읽기 ‘알고 싶은 것’에 유의하며 읽기
독서 후	④ 질문에 대한 해답 찾기	⑤ ‘새롭게 알게 된 것’ 적기

10. 밑줄 친 단어의 의미가 ㉠와 같은 것은?

- ① 인내력을 키워야 성공할 수 있다.
- ② 소를 키우려면 매우 부지런해야 한다.
- ③ 나는 내 힘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싶소.
- ④ 아픈 것을 참다 보면 병을 키우게 된다.
- ⑤ 그녀는 사막에서 나무를 키운 사람이다.